

제주해군기지 문제 '평화적 해결' 호소 KCRP, 강정마을관련 성명

불교, 가톨릭, 기독교 등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지난 8월29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해군, 강정마을 주민들이 함께 대화에 적극 나서 현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우리 종교인들은 제주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과 민간의 갈등 상황이 심각한 결과로 치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많이 염려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한편 주민들은 해군기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07년 마을을 '생명평화 마을'로 스스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여온 강동군 마을 회장이 구속되는 등 주민과 정부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봉은사 수행환경 수호

'다라니독송 3년 정진'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스님)가 도심 속 천년고찰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다라니독송 3년 정진기도' 정진에 들어간다.

봉은사는 오는 21일 오후2시 입재를 시작으로 2015년 3월까지 3년6개월에 걸쳐 다라니독송 기도를 봉행한다.

천수다라니 108독과 관세음보살 42대원 진언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도는 주간과 철야로 구성됐다.

주간기도는 매일 관음제일 오후2시부터 6시까지, 철야기도는 매일 셋째 주 토요일 오후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다. 또한 7개월마다 천도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은 "도심의 빌딩 숲 속에서도 1200여 년간 제자리를 지키며 한국불교의 수행 중심도량으로 기풍을 이어온 봉은사는 이번 기도를 새로운 중흥시대를 맞을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佛法)과 수행도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8월27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함께 참배단에 분향한 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국가와 민족문제 고민하는 자리”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7대 종단 지도자 광주5·18민주 참배... 희생자 넋 위로

7대 종단 지도자들이 광주를 함께 찾아 종교간 화합을 다졌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김희중 대주교)는 지난 8월26일 광주대교구청을 방문해 우의를 다졌다. 이번 방문은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김 대주교와 천주교 관계자들의 환대를 받으며 교구청을 방문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7대 종단 지도자들은 환영식에

이러 교구청을 둘러본 후 광주 동구 살레시오 수녀회 '피정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우의와 친선을 나눴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한반도 평화와 종교화합을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광주에 초청해 주신 김희중 대주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불교에서도 7대 종단 대표를 모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교간의 상생과 평화를 위해 7대 종단 지도

자들이 만나 이 자리가 국가와 민족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날 김희중 대주교에게 범종을 선물했다. 이에 김 대주교는 "이 종은 종교간 평화와 상생을 상징하고 있다"며 "종단의 친교를 뛰어 넘어 국가와 민족문제에 대해 동참하는 이심전심의 징검다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함께 참석한 종교 지도자들도 한 목소리로 종교 평화를 발원했다.

종단 지도자들은 다음날인 8월27일 강운태 광주시장과 국립 5·18민주묘지참배단에 분향한 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어 이형주 5·18민주묘지 관리소장의 안내로 추모관을 둘러 1980년 5월 당시 사진과 영상을 관람하며 5·18 광주의 아픔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국립 5·18민주묘지 방문을 마친 지도자들은 전남 나주 광주카톨릭대학교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에는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주원 원불교 교정원장,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최근덕 성균관 관장, 임은길 천도교 교령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부처님 스님 보살님... 잊지 못할 겁니다”

유성기업 노조원, 화쟁위원회 찾아 인사

"다급한 마음에 사전 협의 없이 불쑥 찾아온 저희를 보살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그리고 스님, 음식 챙겨주신 보살님들 잊지 못할 겁니다."

지난 8월29일 이구영 영동지회장 등 노조원들이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스님을 만나 이같은 감사인사를 전했다. 유성기업 사태는 노사가 8월31일까지 노조원 전원 생산현장 복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민 증재안에 합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8월29일 아산경찰서 자진 출두를 앞두고 만난 이구영 지회장은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며 불교계에 대한 고마움을 재차 표현했다.

이구영 지회장은 "절박할 때 받아 준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여러 스님들 덕분에 현

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도법스님은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고 선연한 집행부인 만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저런 방안을 모색했다"며 "그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도 지혜롭게 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쟁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이번 해결 과정에서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스님을 노조와 사측의 요구사항을 중재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다고 밝혔다.

유성기업 사태는 주간 2교대제 시행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이던 노조가 5월18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비롯됐다.

이구영 영동지회장 등 노조원들은 지난 6월29일 조계사로 들어왔다. 그동안 대응전 뒤편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며, 법당에서 기도하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직까지 전원 복귀를 제외한 주간2교대제 합의 이행, 징계 여부, 부상자의 치료비 등 나머지 문제는 고스란히 노조의 과제로 남았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불광산사 공승법회 참관 체계적 종무시스템 전학

전국 교구본사 사무장 대만 연수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부장 영담스님)는 지난 8월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동안 대만 불광산사 등지에서 '제2회 교구본사 사무장(종무실장)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총무원의 소양과 사기를 진작하고 중앙종무기관과 지방종무기관간의 원활한 소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전국 19개 교구본사 사무장 및 종무원 22명과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10여 명 등 총 37명이 참가했다.

연수는 대만 가오슝 불광산사에서의 1박2일 템플스테이 체험을 비롯해 불광산사 난빙별원, 타이페이도량, 금광명사, 화련 자제공덕회, 타이페이 환경교육센터 등을 잇따라 참배하고 고궁박물관을 관람했다. 또한 '템플스테이 발전 방안'과 '교구본사 종무위원회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의 시간을 통해 종무원으로서 한국불교 발전

을 위해 더욱 더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연수단은 지난 8월21일 1만여 명의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스님들에게 공양물을 올리는 가요송 불광산사 공승법회를 참관하며 장엄함과 환희심을 체득했다.

연수단장 소임을 맡은 총무원 총무국장 현담스님도 이날 공승법회에 직접 참여해 공승의식에 따라 대만 불자로부터 공양물을 직접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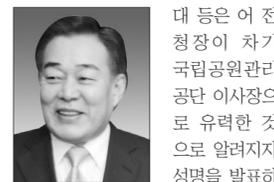
현담스님은 "4박5일이라는 짧은 연수일정이지만 대만 불광산사와 자제공덕회 등의 체계적인 종무시스템과 큰 역량을 직접 보고 체험한 뜻 깊은 자리였다"면서 "이들 사찰이 했던 것처럼 한국불교에서도 심시일반으로 보시하고 자비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각 교구본사에서 하나 둘 찾아 실천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어청수 전 경찰청장 임명

어청수 전 경찰청장(사진)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환경부는 공모 및 이사장 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지난 8월29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어청수 전 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은 8월3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3년이다.



대 등은 어청수 전 청장이 차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자 성명을 발표하고 우회적으로

환경부는 "공공조직 경영과 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갈등을 해소한 경험이 많다"며 "국립공원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과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이사장 선임을 앞두고 반대 여론이 제기되는 등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적 여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불교환경연

불쾌감을 표시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8월9일 성명을 발표하고 "역사·문화·자원을 관리하는 공단의 대표로서 자연과 문화 환경의 보전·계승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며 "사찰을 비롯한 민간 소유의 상당한 토지를 대상으로 국립공원이 지정돼 있는 만큼 이해 관계자와의 조정과 화합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제187회 중앙종회(임시회) 집회 공고

종헌 제39조 및 중앙종회법 제14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187회 중앙종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다음 -

- 집회 일시 - 불기2555(2011)년 9월 19일(월) 오전 10시
- 회 기 - 불기2555(2011)년 9월 19일(월) ~ 9월 23일(금)(5일간)
- 집회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주요 안건 - 1. 종법 제·개정 의 건
2. 기타

◆의안 접수 기한 : 9월 14일(수)까지

◆종책질의 접수 기한 : 9월 14일(수)까지

※의안 및 종책질의는 구비 서류(홈페이지 참조)를 갖추어 위 기한까지 중앙종회사무처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FAX 등을 통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종회의원 스님께서서는 가사장삼을 착용하시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55(2011)년 9월 3일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